

2023년 고용둔화 전망, 경각심 가져야 할 때

김 유 빈*

2022년 들어서도 고용회복세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년대비 370천 명 증가한 2021년의 기저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3분기 780천 명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할 정도로 양호한 회복세를 기록했다. 계절조정계열로도 코로나19 이전의 고용 고점인 2020년 2월 대비 2022년 10월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102.5% 수준에 있고 이는 장기추세를 상회한다.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하면서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실업률이 1999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2.1%, 가장 최근인 10월 기준으로는 2.4%를 기록했다. 즉, 2022년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양적활력을 유지한 시기라 평가할 만하다. 이에, 이번 12월호 『노동리뷰』 특집은 2022년 노동시장 동향을 개괄하고 세부동향을 부문별로 정리하는 한편,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한 2023년의 고용상황을 전망하였다. 먼저 2022년 노동시장 동향을 계층·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자 외 고용지표에 있어서는 실업률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실업률은 올해 1분기 3.5%를 시작으로 3분기 2.5%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상반기 내 실업률 감소를 견인했던 청년층의 실업률 감소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50대 및 60대 실업률은 그간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자와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높은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2분기 이후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 3분기에는 52만 7천 명 감소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 감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취업준비와 쉬었음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구직단념자 역시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활동으로의 편입이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껏 코로나19로부터의 고용회복 과정에 있어 우려의 중심이 되었던 점은 업종 간, 연령대 간, 또는 고용형태 간의 양극화 추세였다. 비대면·사회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와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침체 지속, 청년 및 고령층, 상용·임시직 위주의 취업자 증가 등 고용충격의 상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호조세를 보인 부문이 있었던 반면, 고용악화 추세가 더욱 부각된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ykim@kli.re.kr).

부문도 존재했다. 다만, 2022년도에 들어서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수준 고용회복 신호를 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10월까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62만 명 증가했다. 2020년 1~10월 기간 22만 명 감소하고 2021년에 다시 23만 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하반기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일견 대면서비스업 고용의 위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지만 재확산에 따른 고용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대면서비스업 중 고용회복의 기미가 가장 큰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2022년 1~10월 기간 평균 8.6만 명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키우고 있다. 다만, 또 다른 대표적 대면서비스업종의 하나인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상반기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고용회복세를 기대하게 하였으나, 최근 감소폭이 다시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소매업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과 판매업이 장기추세상 매월 1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소매업 고용은 증장기적으로도 증가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는 작년에 이어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분기별 흐름으로는 둔화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조정 취업자의 경우에는 5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50대의 경우 여전히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견인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일자리사업 시행의 영향이 여전하기 때문에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변화가 크지 않은 30대 역시 하반기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용직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용직 취업자는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서 고용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가한 도소매업에 있어서도 상용직은 증가 중에 있다. 그 외 산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순으로 상용직 증가폭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2021년 1월 이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던 임시직 고용은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올해 3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0년 이례적인 수준으로 급감한 임시직 고용은 2021년 1월 이후 가파르게 회복해 코로나19 이전의 고용 수준을 넘어서는 듯했으나, 임시직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임시직이 여전히 감소 중이고 직접일자리사업의 영향 감소로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임시직도 감소추세에 있다. 다만, 3분기 이후 숙박음식점업 임시직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편, 일용직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 중에 있다. 고용비중이 가장 큰 건설업 일용직이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 일용직의 고용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12월호 『노동리뷰』는 2022년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2023년 전망을 다루고 있다. 먼저, 고용전망에 반영되는 거시경제적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는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1.7~1.8% 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경제는 완연한 경기둔화 추세로 접어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장률 하락 외에도 원자재 수급불균형과 글로벌 물류 차질, 미중 간 무역갈등 및 러-우 전쟁 등 경제적 하방위험 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점은 고용전망에 있어 우려를 더하는 점이다. 다만, 상기 위험요인들은 그 위험신호가 발현된 후 지금까지 고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작용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둔화는 급격하게 발생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게 한다.

상기의 전망요소를 반영하여 추산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고용전망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하방위험 요인을 동반한 특이점이 발생치 않을 경우, 2023년 취업자 수는 2022년 대비 8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추이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38천 명, 하반기에 40천 명 증가하여 고용회복세가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3년 취업자 전망치인 89천 명은 2022년 790천 명 증가(11, 12월 예상치 반영)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에 해당하지만,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었음을 고려하면 고용위기 수준으로 인식할 여지는 적다. 다만, 최근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위축이 심화될 경우 해당 거시경제적 하방위험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고용증가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그 필요성이 높다.

고용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실효를 거두어, 작금의 고용회복 추세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동리뷰』 집필진을 포함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들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기별 이슈를 다룰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KLI**